

다도해 풍광·솔숲 낙조 눈부신 '다시마 본고장'



완도는 265개 섬들이 한 폭의 그림을 완성시킨다. 맑은 공기와 탁트인 바다. 월송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 환경을 보유한 최고의 휴식처다.

/김진수 기자 jean@kwangju.co.kr

170여 가구 대부분 다시마 양식...2년마다 축제 열어
6~7월 수확철 온 마을이 다시마 건조장 변신 '진풍경'
명사십리해수욕장 해당화·고운 모래·얕은 수심 인기
253m 망산, 다도해 절경 감상하며 걷는 트레킹 명소

가을 바닷바람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다.

완도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 20분, 온 몸으로 달려드는 바람은 지친 마음을 씻어내듯 가슴 가득 청량감을 선물한다.

다도해의 절경이 일품인 완도, 그중에서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섬 평일도는 이름처럼 평화 그 자체다.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들녘과 바다, 느리게 달려와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시간도 더디게 흐를 것만 같다. 특히 청정 해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해 바다낚시 적지로 손꼽히며 미역·다시마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약산면 당목항-금일읍 일정한 노선은 아침 6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섬과 육지를 연결한다. 하절기 마지막 배는 오후 7시 20분, 동절기는 6시 30분이다. 강진 마량-고금-약산이 다리로 연결돼 이 노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금일읍에서 18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조그만 재를 넘어보면 월송마을이 나온다. 포물선을 그리듯 마을을 감싸안은 해

안선 위로 170여 가구가 바다를 굽어보며 살터를 일궈가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다시마 양식을 주업으로 삼는다.

평일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다시마의 본고장. 월송마을은 연간 600t을 생산하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큰 파도가 적은 지리적 특성과 다시마의 생육 특성이 잘 맞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빈 땅에 굵은 그물을 씌워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하는데 수확철인 6-7월에 찾아오면 섬을 뒤덮은 다시마가 진풍경을 연출한다. 농심 라면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가 바로 이곳 평일도 산이다.

금일읍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월송마을은 논밭 수익도 높아 부촌으로 손꼽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논지의 95%가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되는 등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큰 어장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황무지인 탓에 조업면적이 좁은 것도 마을의 고민거리다.

다시마는 11월에 씨를 뿌리고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습 작업을 거쳐 6-7월에 수확한다. 이 시기에 맞춰 격년제

로 다시마 축제가 열리는데 물려든 일손과 축제 방문객으로 섬 전체가 들쭉날쭉하다. 주민들은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으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린다. 관광객들은 다시마 채취와 건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마을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솔숲. 2백~3백년 된 소나무 2천 그루가 1.2km 해안선을 타고 줄지어 서서 해풍을 막고 있다. 이곳 풍경은 해가 진 뒤부터가 진짜다. 수평선 붉은 기운 위로 밤의 푸른 색감이 겹쳐지며 소나무 위로 달이 떠오른다. 그 모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마을 이름을 월송이라 지었을까. 솔숲은 군 보호림으로 지정돼 완도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취사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

솔숲 테크길을 걷다 양식 시설물 손질에 바쁜 40대 귀어 부부를 만났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부부는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한지 올해로 5년째. 귀어 생활을 묻자 "나고 자란 고향이었던 터라 정착이 수월했다"며 "공기 좋고 사람들도 좋아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수임이나 여러면에서 더 낫다"며 수줍게 웃었다.

또 하나의 명소는 솔숲 너머로 펼쳐진 명사십리 해수욕장. 평일도 동쪽 사동리에서 서쪽에 이르는 3.6km에 달하는 백사장으로 고운 모래, 얕은 수심으로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들이 놀이에도 아영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당화가 많이 피는

곳이라 금일해수욕장이라는 이름보다 '금일 해당화 해변'으로 많이 알려졌다.

주변에 민박·펜션 시설이 갖춰져 있고 해수욕장 한가운데에 해변 관리소, 그 옆으로 샤워장이 있다. 모래밭 뒤로는 몽골 텐트촌이 있는데 한 여름 성수기에 하루 이용료 2만원을 받는다.

평일도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망산이다. 253m의 높이 않은 산으로 산책하듯 오르며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일품 트레킹 코스다. 산림청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산 7부 능선에 4-5km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다.

마을 가장 한인주씨는 "신평·동성·월송 마을 3곳에 오르는 길이 있고 맑은 날엔 저 멀리 정산도·고흥·여천·장흥·제주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며 "해질녘 노을 지는 풍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만큼 아름답다"고 말했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 그림 같은 다도해의 풍광은 낚시인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해류가 좋아 굳이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도 어종이 풍부해 어디에서나 낚시대를 드리우면 찌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천상의 낚시터다. 직접 잡은 감성돔으로 뜬 생선회와 뜨끈한 라면국물이 술 한 잔이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

여행이 주는 소박한 행복은 여유, 섬에 자발적으로 간하는 선택은 어떠한가. 저 멀리 모여 앉은 섬 사이로 양식장 부표가 한가롭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TG → 강진무위사IC → 강진군 → 고금면 → 약산면 당목항 → 일정한 → 금일읍 → 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녹동버

(15분) → 동송항(50분) → 택시로 월송마을 이동(9분)

▶ 열차

용산역KTX → 순천역(2시간21분) → 순천역 정류장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10분) →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도보 이동(4분) → 녹동버스공용정류장(1시간15분) → 녹동항(15분) → 동송항(50분) → 택시로 월송마을 이동(9분)

“대대손손 옛 인심 지켜가는 예의바른 마을 풍력발전단지 유치·연륙교 건설 숙원사업”

김민수 어촌계장

“깨끗한 환경, 수려한 풍경, 넉넉한 인심...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입니다. 관광도 좋고 귀촌도 좋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53) 어촌계장은 학창시절 몇 년을 빼고는 줄곧 고향을 지켜온 이 마을 토박이다.

금일에서 가장 부촌이었던 마을의 흥망을 지켜본 그는 옛 부흥을 찾기위해 오늘도 고민이 깊다.

해송숲·명사십리해수욕장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은 고금·신지도에 연륙교가 놓인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 고된 일을 할 수 있는 일손은 한정되어가고 있다.

김계장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육지와 왕래를 위해 배를 타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풍력발전단지를 유치해 연륙교 놓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꼽아들고 고령화로 인해 고된 일을 할 수 있는 일손은 한정되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귀촌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도 3가구가 새롭게 정착을 시작했지만 맑게 일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어촌계장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에



게 어장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지만 행정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을자랑을 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대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 수임이 늘고 정착하는 사람이 늘어나 어촌계도 다양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황무지가 태반인 어장 면허지 위치를 옮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올해 승인 심사에서 탈락했다.”

끝으로 그는 “격년제로 열리는 다시마 축제가 내년엔 열린다”며 “하루전에 오면 솔숲 낙조를 보고 이 고장 산해진미도 맛보며 전야제의 여흥을 즐길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6월부터 채취를 시작하는 다시마는 뜨거운 햇살과 지열을 이용해 건조한다. 이 시기의 섬은 온통 다시마로 뒤덮인 진풍경을 연출한다.



2백~3백년 된 소나무 2천 그루가 1.2km 해안선을 타고 줄지어 서서 해풍을 막고 있다. 소나무 위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우며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됐다.